

1125(금) 고린도후서 6-9장 복음의 사람, 바울

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우선으로 했습니다.
말씀을 선포하고 잘못을 책망하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
고린도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.
매사에 성령으로 행하며 타협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
고난과 역경, 궁핍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.

(6:4-5, 11:7-9, 23-30)

성도들은 바울의 유별남을 마뜩잖게 여겼습니다.
거짓교사들이 교묘히 이 틈을 파고들어 이간질했으며
고린도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사랑에서 등을 돌렸습니다.
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후퇴했습니다.
함께 해오던 사역들도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.

(1:17, 4:2, 16, 6:8, 7:2, 10:1, 10-11:6-21, 12:1, 11-12)

바울은 관계 회복을 위해 거짓 위안을 건네지 않고
언제나 그러했듯 진리로써 상황을 타개해 나갑니다.
구별된 삶, 청결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
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진심을 전합니다(6장-7:4).
다행히 둘의 상황은 호전 되었습니다(7:5-16).

관계가 회복되자마자 바울은 훈련을 재개합니다(11:2).
그는 고린도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, 헌신을 본받아
복음 사역과 지체들을 위한 모금을 재개하라고 권합니다(8장).
바울의 삶/사역/관계들은 결국 복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.

하나님은 돈보다 은혜를 선택하며 복을 나누는 자,
마음을 다해,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
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십니다(9:7-8, 잠22:1, 시112:9, 사55:10).
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이 복음으로 참 그리스도인 되길 원했으며,
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길 소망했습니다.

나는 복음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까?

- ❶ 복음을 우선으로 두고 선택하며 행동합니까?
- ❷ 문제와 상황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풀어갑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고린도후전서 6-9장